



“예래단지 사업 제주도·JDC 책임져야”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JDC 대상 국정감사 코로나19로 면세점 직격탄... 대책 마련 지적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JDC가 투자자에 대해 유양형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와 JDC가 책임을 지고 관계자 처벌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JDC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문대립 JDC 이사장에게 “이번 사안은 단순히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라며 후속 대책을 질의했다.

최 의원은 “이 사업의 공평률이 65

%에 이른다. 125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배상했는데 관련해서 제주도 JDC 중 어디에 책임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문 이사장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소송 정리 이후 그 부분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인허가는 제주도에서 진행했고, JDC는 사업시행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김희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 자료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무산됐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제주도와 JDC의 자세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JDC와 제주도가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나, 조그마한 실수로 4조원대의 사업이 무산됐다. 인허가권이 있는 제주도, 사업시행자이자 소송을 대응해 온 JDC 모두의 책임이 있다”면서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 론스타 이후 두번째로 큰 소송이 될 뻔 했지만, 그래도 적극적 대응으로 1250억원 규모로 합의됐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사례를 공유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감에서는 사업의 대부분을 면세 매출에 의지하고 있는 JDC가 코로나19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희재 의원은 국감 자료에서 “코로나가 시작된 금년 2~4월 JDC의 면세 매출은 591억원으로, 전년 1375억원 대비 57% 급감했고 하반기에 만회를 한다 해도, 2020년 전체 예상 매출은 4307억원으로 전년 대비, 768억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JDC의 올해 당기순이익은 944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제는 JDC가 면세 사업 매출로 다른 사업의 적자를 메워가기 때문에 면세 매출이 하락하면 다른 사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JDC는 영리 사업으로 면세점 외에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등의 관광산업, 헬스케어타운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의 적자는 1016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각각의 사업이 재무적으로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문 이사장은 이날 국감에 앞서 의원들에게 “제주의 고유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국제도시 이상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기관의 새로운 역할과 방향을 설정해 국민과 제주도 정부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기관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문대립 JDC 이사장(오른쪽 두번째) 등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JDC면세점, 중기 입점 어렵고 퇴출 쉽다

월간 목표매출액이 평가기준 국내 중기 입점률 10.8% 그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지정면세점을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의 입점은 어렵고 퇴출은 쉽게 하는 차별적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은 19일 JDC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JDC 면세점 입점 시 회감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입점제한 항목의 첫

번째 평가기준은 월간 목표매출액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기준임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15년~2020년 9월말까지 면세점 입점을 신청한 중소기업 184개 업체 중 입점에 성공한 국내 중소기업은 20개인 10.8%에 불과했다.

JDC 면세점 입점은 ‘JDC 지정면세점 입점 및 퇴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고 면세점운영위원회 입점 평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고 있다.

또 이 지침 제6조에서 정기퇴출은 연간 상·하반기 매출실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출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에 불리한 구조다. 순이익을 통한 입점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매출실적만으로 퇴출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JDC가 인터넷면세점에서 취급하는 품목을 매장 진열 상품으로 한정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민간 면세점이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매장에 진열되지 않는 다양한 중소기업 브랜드를 인터넷면세점에서 취급하며 5년간 급성장한 반면 JDC는 매장에 진열된 상품

만 인터넷면세점에서 판매하며 2%대의 성장률에 머물렀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거래 업체에서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결제서비스조차 없어서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장으로 직접 와야하는 불편함을 이용자에게 강요하는 등 인터넷면세점의 서비스 저하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JDC가 내국인 대상의 지정면세점 운영 특권을 누리면서 면세점 입점·퇴출에서 중소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며 “매출액 중심의 차별적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인터넷면세점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사진-제주시 제공

제주시 ‘악취소동’ 집중포화

환경도시위원회

시설 과부하·비포장 반출 원인 봉개 주민과 적극적 협의 주문

제주시 동 지역에서 지난 11일 광범위하게 발생한 ‘악취 소동’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포화를 맞았다.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퇴비가 비포장상태로 덜 부속된 상태에서 반출돼 악취를 유발시켰다고 지적하면서 내년 10월이면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음식물자원화센터에 대체할 광역시설이 2023년에야 준공이 예상되는만큼 연장사용을 위해 봉개동 주민과 적극적인 협의도 주문했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11일 오후 제주시 화북동에서 노형동까지 발생한 악취와 관련해 이튿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퇴비로 만드는 과정에서 비포장상태로 쌓아둔 2000t 중 500t을 한 영농조합법인이 인근 목초지 14만㎡에 대량 살포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익,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가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지난 11일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를 오가는 5·16 도로를 이용하면서 심한 악취를 느꼈다. 자원화센터에 반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에 비해 처리량이 적어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 을)은 “부속이 달린 퇴비 2000t을 제주시에서 음식물자원

화센터 외부로 반출했고, 그 가운데 500t을 뿌려서 악취가 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봉개동 주민들이 자원화센터 사용을 연장하겠다고 한다면 가만있지 않을 거라고 본다”며 “예견된 일이고 다른 대안이 없으니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성의 위원장도 “음식물자원화센터에 과부하가 걸려 그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니냐”며 “전반적인 처리방안을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동우 제주시장은 “지난 5월에 공급받은 퇴비여서 10월이 되니 부속된 것으로 알고 뿌린 것 같다. 일반유기질비료도 시비하면 조금은 낫는데 양 행정을 위해 봉개동 주민과 적극적인 협의도 주문했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11일 오후 제주시 화북동에서 노형동까지 발생한 악취와 관련해 이튿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퇴비로 만드는 과정에서 비포장상태로 쌓아둔 2000t 중 500t을 한 영농조합법인이 인근 목초지 14만㎡에 대량 살포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양병우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대정읍)은 “제주시 환경면과 서귀포시 대정읍의 경계지점인 대정읍 무릉2리 지역에서 태풍때 비닐하우스 침수피해를 입었는데 양 행정시가 경계지역이어서 서로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또 강성의 의원장은 “제주시 주차장 확보율이 100%가 넘는다는데 부설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 실제 체감되는 떨어진다”며 “해마다 주차장을 전수조사한다고 하니 주차장을 새로 조성할 때는 읍면동별 주차장 확보율을 감안해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4회 친구해요! 작은도서관 독후감대회

응모기간 2020. 09. 14.(월) ~ 11. 06.(금)
응모분야 초등부, 청소년부, 성인부
응모도서 (사)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협회 선정도서 중 선택

응모요령

- 초등부 : 200자 원고지 5매 내외(A4용지 1~2매)
- 청소년부 :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A4용지 2~3매)
- 성인부 :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A4용지 3~4매)
- *A4용지 : 글자크기 13포인트, 줄간격 160%, 글자모양 휴먼명조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선정도서 독후감(1인 1편)
- *신청서 양식: 홈페이지 jeju-smalllibrary.or.kr 공지사항 게시

접수처

- 우편접수 : (우63103) 제주시 노형로 351, 1층
- 온라인접수 : jeju-mi@hanmail.net
- 문의 : (사)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협회(064-713-2727)

시상내역

-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성인부 1명, 제주도교육감상(초등부 1명, 청소년부 1명))
- 최우수상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상(성인부 1명, 청소년부 1명, 초등부 1명)
- 우수상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상(성인부 1명, 청소년부 1명, 초등부 1명)
- 장려상 : (사)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상(성인부 2명, 청소년부 2명, 초등부 2명)

추진일정

- 심사 : 2020년 11월 중순
- 발표·시상 : 2020년 12월 초(개별행보 및 홈페이지 jeju-smalllibrary.or.kr 발표)

선정도서 목록

- 초등부 : 골짜기 사라졌어(고정욱/맹앤앤) 잘못 뽑은 반장(이은재/주니어김영사) 안읽어 써 가족과 책 오라지(김유/문학동네) 숲을 사랑한 소년(나탈리 민/한울림어린이) 세종대왕이 활났다(김영숙/토도북) 반짝반짝 작은 등대 도대별(김정배/한그루) 우리 아이를 소개합니다(재주아미 특별한 아이/봄의 정편) 나는 나의 주(채인신/토도북)
- 청소년부 : 푸른 늑대의 피수관(김은진/청비) 나는 농담으로 과학을 알린다(오우/웨일북) 우리의 여름을 기억해 (에이원/우리학교) 이름을 훔친 소년(이꽃님/주니어김영사) 지구 아이(최현주/서문소) 필 해도 괜찮아(이남석/사계절출판사) 제리새우: 비밀글(나대환영미/문학동네) 커미유우의 소보로행(김민/필립스/푸른소나무)
- 성인부 : 검은 꽃(김영하/문학동네) 아버지 품 속(모리타 류지/생각의힘) 지금 이대로 좋다(법률/정토출판) 침묵의 불(에이엘 카스/에코리브르) 페스트(알베르 까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박미리/휴) 나는 올 때마다 얼마 얼음이 된다(이슬아/문학동네)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유현준/울음문화사)

*주관 [사)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협회] 후원 [사)제주특별자치도] [사)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제주시

News In Education 비대면

제8회 제주NIE대회

2020. 11. 1.(일) 오후 1:00~4:00

구분	내용
신청자격	뉴스에 관심있는 제주도내 초,중,고 학생
신청기간	2020년 10월 15일(금) ~ 10월 25일(일) 18:00 까지
신청방법	QR코드를 촬영하거나, 다음카페 제주NIE학회로 접속 후 구글폼으로 신청하기 → 대회 진행방법 확인하기

주최 | 제주NIE학회 (http://cafe.daum.net/niejeju)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문의 | 학회장 010-4369-3011 / 부회장 010-8800-6274

제2회 도민대상 전통제례 체험 『유교식 제례』

성균관유도회 제주지부에서는 전통제례 체험을 통해, 제례에는 남녀 구분이 없음을 사회에 인식 시키고, 사라져 가는 유교식 전통제례를 보존 계승하고자 다음과 같이 체험자를 모집합니다.

- 개설 사업명
유교식 전통제례시 여성제한 봉무를 통한 양성평등 사업
- 체험일
2020년 10월 22일 ~ 11월 13일
- 체험시간
-1일차 : 이론 및 실습, 제관교육(2h)
-2일차 : 제례봉행(1h)
- 강의 일정 : 총 4회
-10월 22일 ~ 23일 -10월 29일 ~ 30일
-11월 5일 ~ 6일 -11월 12일 ~ 13일
- 교재
- 무료배부(출기,축문,제물진설도,제관별 업무등)
- 참가비
- 무료
- 체험장소
굴림서원(제주시)
- 접수상담
010-3697-4273
- 모집인원
남·여 7명 4회

[禮記云 君妻性夫人奠盥(예기운 군경생부인전양) 예기에 이르되 남자는 제물을 올리고 부인은 술을 올린다]

성균관유도회 제주지부 회장 김경수